

 인천광역시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GLOBAL TOP 10 CITY INCHEON 세계 10대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4년 7월 2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총 무 과	담 당 자	• 인천사랑팀장 전미경 ☎440-2401 • 담당자 임재권 ☎440-240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오는 9월 인천상륙작전 기념해 대규모 주간행사 준비
 - 9월 6일~12일까지, 평화와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 마련 -
 -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 내년에는 참전국 정상 참가하는 국제행사 계획도 -

인천시가 「9·15 인천상륙작전 제74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평화와 화합이 공존하는 세계 시민의 안보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념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시는 지난 5월,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범시민 추진협의회에 준비사항을 보고했다. 당시 추진협의회는,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토대로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문’을 협의회 공동대표인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달했으며, 시는 이를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6월에는 해군본부 전담팀(TF) 및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전담팀(TF)을 구성해 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유관기관의 역량결집을 통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다짐했다.

시는 올해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기념식을 비롯해 인천상륙작전 기념 시가행진, 인천평화안보포럼, 유엔(UN)참전국(22개국) 유학생과 함께하는 유엔아이(UNI(Incheon)) 평화캠프, 「작전명 크로마이트 그날의 이야기」 강연, 2024 통일청년대화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대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육상 기념식을 진행한다.

인천상륙작전 전적지인 팔미도를 탐방하는 「팔미도 가보자」와 유아부터 중등부까지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평화그림 그리기대회」, 「밀리터리 체험 행사」 및 「함정 공개행사」 등 대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다.

또한, 주요 행사들을 군·구별 특성에 맞게 균형 배치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중구·동구·미추홀구가 함께 참여하는 「인천상륙작전 기념 시가행진」은 동인천역에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까지 대규모로 진행되며,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 보훈 콘서트」, 중구에서 주관하는 「평화 월미문화축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월미도 원주민희생자 위령비에서는 희생된 원주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올해도 열릴 예정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주간행사로 치러진다”며 “제75주년이 되는 오는

2025년에는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국가들의 정상들과 참전용사들이 함께하는 대규모의 국제행사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관련사진〉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해 9월 15일 동인천역 인근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호국보훈 거리행진'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